

CHANNEL

55th

55th Anniversary!
찬란히 빛날 2024년의 시작

삼정 KPMG

COVER STORY

Hello 2024! KPMG Korea 55th Anniversary!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pecially 올해는 KPMG Korea 5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를 기념하며 5월 16일,

삼정KPMG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People First Concer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함께 만들어 갈 우리들의 대축제가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2024년을 더 큰 설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모두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는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NTENTS

Vol
252



건강한 성장

04 CEO 신년사

KPMG Korea 55주년의 해,
'Vision 2025'를 향한 도전을 함께 합시다!

06 운영위원 신년사

갑진년,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운영위원이 보내온 신년 메시지

08 Emerging Trends

2024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은?

10 Market Reader

COP28 리뷰: UAE 컨센서스(UAE Consensus)

12 Team Story

투자 검토에서 Value-Creation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Deal Advisory8본부

14 Client+

건설·무역·스포츠 넘어 신재생에너지까지!
글로벌 종합사업 기업 '코오롱글로벌'

16 Expert's Advice

올해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어떻게 대응해야?

18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20 Hello 2024

올해는 나의 것!
2024 힘차게 비상할 용띠 삼성인 소망 대공개

22 Trusted Advisor

55주년의 시작을
함께한 신입 컨설턴트를 소개합니다!

24 인재양성소

FY23 New Partner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멘토 & 멘티를 만나다!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머피가 샐리를 만났을 때

28 心 Care

MBTI, E와 I의 진실은?
외향형과 내향형:
에너지의 급속충전을 위한 트랙

30 Samjong News

2024년 시무식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KPMG Korea 55주년의 해,

‘Vision 2025’를 향한 도전을 함께 합시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甲辰年)은 예부터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청룡의 힘찬 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더욱 비상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는 9년 연속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신입 회계사를 채용하였고,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결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보이며 미래를 위한 주니어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더 좋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며 ‘People First 2023’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업무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업무 품질은 물론 Work & Life Balance를 향상하였고,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최고의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은 변함없이 견고한 성장을 이룬 해이기도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모든 부문에서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으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미래 준비를 위한 Deal Advisory, Consulting Services 부문의 조직 개편으로,

甲辰年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KPMG ASPAC Partners Conference’에서는 우리가 이룬 ‘Vision 2020’ 성과와 ‘Vision 2025’를 향한 여정을 자랑스럽게 공유하였고, 해외 Member Firm들도 높은 관심으로 주목하였던 우리의 성취는 삼정 KPMG 가족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경기 상황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ChatGPT로 대변되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높은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우리는 경쟁법인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며 변화를 선도할 것이며,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삼정KPMG는 ‘AI Center’를 통해 AI 기술 도입 전략부터 구축, 실행, AI 거버넌스 수립까지 AI 전반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미래 혁신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삼정KPMG는 AI를 포함한 앞선 IT 기술 도입으로 ‘디지털 회계감사’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절차 자동화 및 보고서 합계검증 툴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감사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 역량을 인정받아 삼정KPMG의 Smart Footing Tool 개발팀은 2주 전 ‘2023 KPMG ASPAC Chairman’s Award’에서 업무 혁신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KPMG Clara AI Chat과 Copilot을 도입하여 감사 실무가 더욱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이 임박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규제 대응과 핵심 공시 콘텐츠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및 실행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ESG 컨설팅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여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기업들의 성공적인 ESG 경영을 선도하고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재’입니다. 2024년에도 진심을 다하여 ‘Human Being’으로서 인재를 존중하는 ‘People First’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Innovative Change와 함께,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즐거운 법인 생활을 만들어 갈 Smart Caring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와 연계된 차별화된 최고의 보상을 이뤄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은 KPMG Korea 5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55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하며 건강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여정을 구성원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에는 ‘삼정KPMG 55주년 기념 People First Concer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새해의 힘찬 시작과 함께 우리의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다져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우리가 품은 원대한 비전을 이뤄 나갑시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일과 가정에서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삼정KPMG 회장 김교태

갑진년,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운영위원이 보내온 신년 메시지

金石爲開



*
금석위개

한은섭 부회장
Audit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Vision 2025 달성을 향해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Audit Innovation과 People First 과제를 구체화하고 구성원들의 행복과 고객의 신뢰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질적 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통해 Vision 2025의 마지막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삼정KPMG 구성원 모두가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

解弦更張



*
해현갱장

윤학섭 대표
TAX

People First 정신과 고객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 일 년간 대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위기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조안 마그레타는 '경영이란 무엇인가'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생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려면 변화하면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고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People First 정신과 고객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해현갱장(解弦更張)의 정신으로 우리의 고유함을 더욱 견고히 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맨다.

與時俱進



*
여시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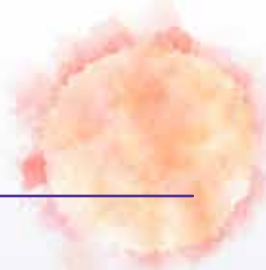
김이동 부대표
Deal Advisory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대처해 나갈 것!

예전 로마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여 번성하였다 합니다. 인공지능,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때로 두렵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합니다. 2024년 고객 여러분들이 맞이할 많은 변화가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대처하여, 새로운 미래의 초석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삼정KPMG Deal Advisory 부문이 작은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아간다는 뜻, 유연한 자세로 시대 변화에 알맞게 대처해야 한다.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여 삼정KPMG 운영위원들이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다.
KPMG Korea 55주년을 맞이하며 운영위원들의 목표와 새 다짐을 엿볼 수 있는
2024년 신년 메시지를 소개한다.

見機行事



*
견기행사

박상원 부대표
Consulting(CS)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자
요즘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AI와 ESG일 것입니다. ChatGPT 이후 세상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를 통한 디지털 실천의 세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ESG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빠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CS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체계 하에,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적시에 선제적으로 행동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삼정인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신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변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변화 속에 기회를 예측하고 빠르게 행동한다.

與世推移



*
여세추이

양승열 대표
Risk Management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우리는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처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우리는 여세추이(與世推移)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하여 솔루션을 찾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도전에 힘찬 성공과 번영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삼정KPMG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2024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세상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해가야 한다.

保合大和



*
보합대화

이호준 부대표
COO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밝은 미래를 향한 2024년이 되길 희망

지난 2023년 우리는 쉽지 않은 환경에도 Together, For Better의 하나된 마음으로 삼정KPMG의 건강한 성장을 이어나며, 인재를 위한 People First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미리 멀리 보고, 한마음으로 지혜롭게 변화에 앞서 도전하며 어려움도 우리의 기회로 삼는다면 안팎으로 업계를 선도하며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건강하고 행복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마음을 가지면 큰의미의대화함을 이룰 수 있다.

2024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은?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도 불리는 갑진년(甲辰年)이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많이 소개된다. 특히 2024년을 상징하는 동물인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국내 산업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23개 주요 산업의 다가올 한 해를 전망했다.

'반도체' 등 11개 산업은 '일부 긍정적'일 것

국내 주요 산업 23개 기상을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11개 산업이 '일부 긍정적'인 업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반도체 시장은 2023년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높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시장도 2023년 대비 성장세(출하량 기준)를 보이며,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AI 스마트폰으로 인해 새로운 섹터가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의 경우, 2024년 글로벌 발주량은 감소할지라도 국내 조선사의 높은 수주잔량과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가 증가하며 안정적인 업황이 예상된다. 정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수요 대비 공급량이 타이틀 전망으로 전반적인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유틸리티 산업도 전년 대비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요가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역시 2024년 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



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해외 시장을 활발하게 공략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외 항공,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식품·외식, 화장품, 손해보험 산업 등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등 8개 산업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한편,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8개 산업은 2023년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차량 대기수요가 2023년 대부분 해소된 관계로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철강 산업 역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철강 수요의 부진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방산업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통 산업도 인플레이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며 구매력 또한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업은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참여, ELS 불완전 판매 이슈 및 보상 책임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이다. 그 외 디스플레이, 게임, 생명보험도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산업 전망 기상도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ACT US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일부 긍정적

| | | | | | | | |
|--|--|---|--|---|---|---|---|
| 반도체  | 휴대폰  | 조선  | 정유·화학  | 에너지·유틸리티  | 제약·바이오  | 항공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 식품·외식  | 화장품  | 손해보험  | | | | | |

일부 부정적

| | | | | | | | |
|---|---|--|--|--|--|--|--|
| 디스플레이  | 자동차  | 철강  | 게임  | 유통  | 패션  | 은행  | 생명보험  |
|---|---|--|--|--|--|--|--|

부정적

| | |
|---|---|
| 해운  | 건설  |
| 증권  | 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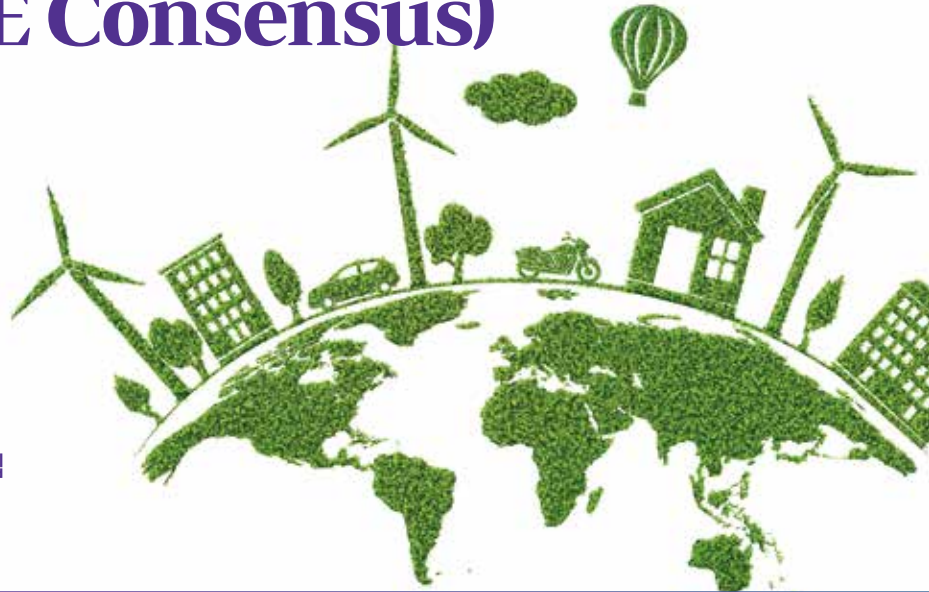
‘해운’ 등 4개 산업은 도전적인 한해를 예상

해운 등 4개 산업은 글로벌 경제 둔화, 고금리 기조로 수요 및 수익성 창출에 제약이 있어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산업은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OPEC+ 감산합의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해운 물동량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산업 역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증권 및 카드 산업도 수익성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2024년은 국내 기업에게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글로벌 및 국내 경제는 제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AI(인공지능)가 각 산업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며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기업은 다양한 이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늘로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2024년 새해에도 국내 기업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를 선도해 나가기 기대한다.

COP28 리뷰: UAE 컨센서스(UAE Consensus)

글로벌 탄소중립 여정에 대한 첫 번째 성적표를 발행하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28th, COP28)가 약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2023년 12월 13일 폐막했다. COP28은 당사국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대표 결정문을 두고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겪으며 당초 폐막일을 하루 넘겨 최종 합의문 'UAE 컨센서스(UAE Consensus)'를 채택했다. 이번 호에서는 COP28에서 다루어진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8),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까?

해마다 기후변화와 ESG 관련 키워드로 주목받는 'COP'는 당사국 총회라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어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1995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온 COP는 올해 28회째를 맞이했다. 2023년의 COP28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어, 주요 의제로 ①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 공유, ②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③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손실과 피해 대응책 마련, ④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 등 개발도상국 탈탄소화 지원 등이 논의됐다.

먼저 COP28 기후정상회담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10년 안에 '탈 화석 연료 전환(Transitioning Away)'을 가속화 한다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또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를 확대하고 매년 에너지 효율을 2배

끌어올리기로도 약속했다.

한편, 이번 COP28에서는 개도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개도국이 겪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에 선진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약속하면서 조성된 해당 기금은 앞으로 4년간 세계은행(WB)이 임시 운영하기로 하였고, COP28에서 UAE, 독일, 영국, 미국, 일본, EU 등이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에서 개도국들의 탈탄소를 돕는 '기후 클럽(Climate Club)'도 공식 출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탄소누출을 완화하는 등 회원국 간 정책 효율을 높이고 연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UAE 컨센서스에서 이뤄진 역사상 첫 '화석 연료' 탈피 약속

이번 COP28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평가한 첫 번째 성적표가 공개되었고, '탈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그간 논의되어온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ing Out)'은 전원 동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COP 총회 시작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손실과 피해 관련 기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규모, 보상 범위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으며, 기후 클럽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가 불참했다는 점이 한계가 있다. COP28 최종 합의문에 대해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절반의 대책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비로소 기후 위기가 화석연료로 인한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UAE 컨센서스(UAE Consensus)¹⁾ 채택

최종합의문 주요 내용

COP28 당초 폐막일(2023년 12월 12일)을 하루 넘긴 2023년 12월 13일 오후 4시경(두바이 현지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

-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
파리협정 내 지구 평균기온 1.5°C 상승 제한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을 평가한 첫 번째 성적표 발행
-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안에 정의롭고 질서정연하게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확대하며,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발전소 신속히 폐기 및 신규 허가 제한
- 클린 테크(Clean Tech) 개발의 가속화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²⁾) 등 클린 테크 개발의 가속화 강조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2023.12.13 기준 Note 2):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최종합의문에 대한 코멘트



슬탄 알자베르 COP28 의장(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
"세계 최초로 (기후 관련)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비로소 기후위기가 화석연료로 인한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이정표", "이는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자 진작에 이뤄졌어야..."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이번 합의는 화석연료 종말의 시작", "당사국은 모든 내용에 빠짐없이 동의하고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스테판 콜블리우스 박사 세계자연기금 기후변화 전문가
"석탄·석유·가스의 단계적 퇴출을 촉구하는 데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UAE 컨센서스, 어떤 영향 끼칠까? 고려해야 할 사항은?

COP28 최종 합의결과와 주요 국가·기관의 핵심 메시지를 종합할 때,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리스크 관리와 기회 선점에 모두 힘써야 한다. 먼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필요 시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NDC 상향 조정 시나리오뿐 아니라 향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용 증대, 주요 수출 시장 내 사업 및 공급망 리스크, 탄소 관련 비용 발생 등의 변수들도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대응 노력과 더불어 기존 비즈니스를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인 철강 산업은 철강 생산 시 탄소 배출을 수소로 전환하는 '그린 스틸' 개발을 통해 산업 공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시함에 따라 원자력, 수소 산업에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세대 기술의 글로벌 표준 형성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R&D도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UAE 컨센서스에 의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약속에 따라 향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유럽 REPowerEU,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등 재생에너지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각사의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고려할 사항으로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기준이 다양한 기업·규제당국·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각 기업들은 공시기준에 대한 자사의 준비도(Readiness) 진단을 토대로 데이터 관리 체계·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갖추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번 COP28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

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엑손모빌, 셸(Shell) 등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빈패스트 오토(VinFast Auto), JP모건 등 소프트웨어, 자동차, 금융 등 산업별 선도기업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구현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탈탄소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넷제로 대응 전략 마련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CONTACT US



ESG 비즈니스그룹 리더
이동석 부대표
Tel. 02-2112-7954
E-mail. dongseoklee@kr.kpmg.com

경제연구원 임이슬 책임연구원
Tel. 02-2112-3918
E-mail. yeom@kr.kpmg.com

투자 검토에서 Value-Creation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Deal Advisory8본부

삼정KPMG는 지난해 9월 '현장 중심'과 '서비스 전문성 확대'라는 조직 운영 전략에 맞춰 Deal Advisory 부문의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기존의 7본부에서 부동산 및 실사,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본부를 포함한 10본부로 늘렸다. 올해는 Team Story를 통해 새롭게 신설된 Deal Advisory본부를 만나보려 한다. 먼저, 첫 순서로 재무실사(Transaction Service, TS)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Deal Advisory8본부를 소개한다.

Deal Advisory8본부 주요 서비스

Financial due diligence (재무실사), Value creation initiative 자문, PMI 자문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 # Buyside FDD (재무실사, Financial Due Diligence)
- # SPA 및 가격조정 지원
- # PMI 및 VCI (Value Creation)
- # Vendor FDD



정재운 상무

김형천 상무

김진원 부대표(본부장)

이기영 상무

정민재 Manager

김종대 Director

박지후 S. Manager

업계 최고의 재무실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DA8본부의 Manager, S. Manager, Director, 파트너 등이 함께 웃음 짓고 있다.

Deal Advisory 8본부를 소개한다면?

불확실성 및 높은 금리수준 지속돼, 그러나 사모펀드의 새로운 투자영역 성장시키는 기회도 있을 것

현재 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수준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통화긴축과 금리 상승으로 M&A 시장은 많이 위축됐다. 특히 사모펀드들 역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와 엑시트(Exit, 투자자금회수)라는 본연의 활동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시장에서 인수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낮아진 밸류에이션 영향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엑시트가 쉽지 않다. 2024년 역시 극적인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능력 있는 투자자를 향한 자금과 기회의 치우침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 상황의 변화는 크레딧펀드 등 사모펀드의 새로운 투자영역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력과 열정으로 하나된 국내 최고의 재무실사 전문가!

Deal Advisory 8본부(이하 DA8본부)는 매수자실사(Buy-side FDD)부터 주식매매계약(SPA) 및 가격조정 지원, 인수 후 통합(PMI) 및 VCI(Value Creation Initiative), 매도자실사(Vendor DD)까지 M&A Life Cycle 전반에 걸쳐 실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 전문팀으로 출발한 DA8본부는 국내외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재무실사(TS) 전문 인력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팀원들의 열정과 그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원팀 스피릿을 갖춘 본부이다. M&A 과정에서 실사를 ‘War’라고 표현할 만큼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가 높지만, 업계 최고의 팀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DA8본부는 업계에서 ‘Excellence’와 ‘Together’를 가장 잘 실천해 가는 본부로 나아가고자 한다. Excellence의 실천을 통해 사모펀드들의

재무실사 자문의 최선호 자문사 지위를 강화하고, 나아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올리는 Value Creation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기업의 Value Cre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업, 구매, 인사, 회계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삼성KPMG의 각 분야 전문팀을 발굴해 함께 Value Creation 자문에 참여함으로써 고객과 삼성KPMG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견고하게 구축해 가려 한다.



‘신뢰 관계로 차별성 갖춰’

우리 본부는 당장의 성과를 얻기 위해 조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 기업 혹은 오너분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어 좋은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진원 부대표(본부장) jinwonkim@kr.kpmg.com



‘다양성이 존중되는 본부’

우리 본부는 본부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프로젝트마다 서로 조화롭게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본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김형천 상무 hyungchunkim@kr.kpmg.com



‘Together, 협업 시너지 창출’

고객이 투자 대상회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적인 가치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Deal Advisory 8본부는 실사, PMI, Value Creation 업무를 경험 있는 핵심 전문 인력이 KPMG 내의 많은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영 상무 kiyounglee@kr.kpmg.com



‘국내 최고의 실력가’

우리 본부는 국내 최고 수준의 TS 전문 인력 4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Top Tier PE, SI 등 고객들이 먼저 찾는 자문팀입니다. 앞으로도 TS에 대한 선도적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정재훈 상무 jaehoonjung@kr.kpmg.com



건설·무역·스포츠 넘어 신재생에너지까지! 글로벌 종합사업 기업 '코오롱글로벌'

1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무역, 스포츠 산업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사업 기업이다. 이번 호에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을 소개해본다.

건설 부문, 영역 확장 진행 중!

국내외 수상으로 브랜드 가치 인정받아

코오롱글로벌의 건설 부문은 건축·토목·주택·신재생에너지·환경·플랜트·SOC(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 고객 유치, 모듈러 주택 등으로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아파트 브랜드인 '하늘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호텔형 아파트의 효시가 된 분당 트리폴리스, 린든그로브, 더 프라우, 파크폴리스 등 소비자 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공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하늘채 B디자인을 리뉴얼해 한발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나아가 코오롱글로벌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특화 상품 및 서비스를 강화, 입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화수납상품인 '칸칸(KANKAN)', 전용 홈 IoT 스마트 하늘채 IoT'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차에서 집을 제어하는 '카투홈(Car to Home)' 서비스도 적용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세대 내에서 차를 제어하는 '홈투카(Home to Car)' 서비스까지 적용하면서 차와 집의 양방향 연결 서비스를 완성한 바 있다.

최근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인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피트니스 앤 플레이짐(Fitness & Play GYM)'을 포함한 4개 조경특화상품이 우수디자인(GD)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23년 4월에는 하늘채의 체험형 주택 전시관 '하늘채 갤러리(HANULCHE GALLERY)'를 통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인테리어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친환경 기업

코오롱글로벌은 전통적인 종합건설 산업을 넘어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수처리 등 친환경 부문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ESG경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지속 노력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사업기획, 입지분석, 풍황 분석(Micrositing), 사업성분석, 재원조달, 건설공사, 발전소 운영 등 발전사업 전 과정에서 역량을 보유하며 풍력 발전사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사업 점유율 1위 기업은 코오롱글로벌이다. 코오롱글로벌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EPC도급 기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경주 1단계 풍력사업 지분 참여를 시작으로 경주(38MW), 태백 가덕산(80.7MW), 양양(46.2MW), 평창(26MW) 등 총 34개(1020MW) 규모로 운영 중이거나 설립 단계에 있다. 특히 태백 가덕산 1단계는 국내 첫 주민참여형 풍력단지로 지역사회와 상생 모범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1년 임원급을 팀장으로 한 신재생에너지팀을 구성했고 2022년에는 육상풍력, 해상풍력, 수소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규모를 세분화하며 확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030년까지 육상풍력과 리파워링 사업 확대, 해상풍력 강화, 풍력 발전 수소화 등을 단계적으로 이룬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육·해상 풍력발전 외에도 수처리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사업을 확대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국내외 폐수·하수처리, 소각·집진처리, 정수·순수처리, 폐기물자원화시설, 매립시설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수처리 분야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세계 최초로 '저에너지 분리막(멤브레인)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내 건설사 중 최고 수준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수처리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평택 정수장, 고덕폐수 4차 사업과 SK하이닉스 광역상수도 2단계 등 수처리 부문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코오롱글

로벌은 수처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3년 10월에 사우디 리야드 지역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현지업체 마스코(MASCO)사(社)와 사우디 국영수자원공사(NWC) 발주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네옴시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몽골 공동주택(2,958억 원)과 카자흐스탄 KT&G 신공장(612억 원) 등 해외사업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철강, 화학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민 생활 체육 증진 및 건전한 레저 문화 정착에 앞장서

코오롱글로벌은 상사와 스포렉스 등을 통해 다방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상사 부문은 기존 철강·화학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생활상품 및 소비재는 물론 군수품, 안전용품, BYD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수출입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캠핑용 냉장고 '알피쿨'을 공식 수입하고, 생활가전 브랜드인 'Otod', '드리미' 등의 트

렌디한 아이템을 통해 글로벌 마케터의 입지를 확장 중이다. 국내 전기자동차 공급을 위해 중국 BYD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판매 및 A/S 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배터리 관련 사업 등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984년 국내 최초의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인 스포렉스를 설립하고 국민 생활 체육 증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체계화된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으로 타 스포츠센터의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직영점, 위탁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전개 중이다.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사업부문은 지역 및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체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재비행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선수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선수 발굴과 훈련시설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률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 1 코오롱글로벌 경주풍력 2단계 전경
- 2 코오롱글로벌 '수성하늘채 르레브' 단지 전경
- 3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 로봇청소기 '드리미' 제품 이미지
- 4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서초점 수영장

올해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어떻게 대응해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15%를 최소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Q 올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주목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글로벌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듬에 걸맞게 140여 개국의 합의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개별 국가, 개별 회사별로 적용되지 않고, 연결 그룹 단위로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됩니다. 연결매출액 7.5억유로(약 1조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은 동일 국가에 소재한 여러 자회사들의 이익과 세 부담을 합쳐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 시 차액을 최종 모기업이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tax incentive를 받았는데, 글로벌 최

저한세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그룹 차원에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세금을 낮춰 투자를 유치하려는 치킨게임이 종식되고, 다국적기업들이 국가별 세제 차이를 이용해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 증가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목할 점은 제도의 복잡성입니다. 국가별 실효세율을 따질 때 각 자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분모)과 법인세비용(분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조정을 거쳐 산정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소재한 자회사들의 이익 등을 합산한다고 하나, 최종 모기업 입장에서 지분율이 30%에 안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나 펀드 등 투자 기업은 별도로 계산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존재합니다. 글로벌차원

에서 통일성 있게 적용하려다 보니 제도가 복잡하고 법인세회계처리와 각국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나름 OECD가 고민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배려를 했다고 하나 기업의 ERP 시스템 등 본사가 접근가능한 정보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4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관련 회계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당장 2023년 기말 재무제표 공시 때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 영향을 주석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분기별 재무제표 상 추가세액 예상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비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2023년 주석 공시와 2024년 분기별 결산을 적시에 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석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 실적 기준으로 영향 분석을 하면서 주석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존 본사가 보유한 정보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자료를 취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많은 경우 그룹차원에서 통일된 자료 취합 템플릿을 만들고 국내외 담당자 교육, 프로세스 설계, 필요 시 정보 취합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국가가 있으면 현지 과세당국과 재협상, 지배구조개편, 이전가격 정책 변경, 배당정책 변경, OECD 규정 또는 각국 입법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추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존에 글로벌 이익 배분 및 조세 대응 전략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해당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을지 살펴보고, 본사 세무팀이 국내 세무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세무도 챙겨보는 글로벌 세무 관리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삼정KPMG에서 추산하기로 국내에 약 300개 그룹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는 그룹이 50개가 채 안 되는데, 올해 1분기 중 기업들의 분석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문사들의 업무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이른 시일 내 자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베트남도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요?

OECD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설계할 때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각국이 내국세법 상 최저한세를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부합되도록 도입할 경우 모회사보다 우선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한 A국 실효세율이 5%인 상황에서 A국이 적격소재국 추가세 제도를 도입한 경우 10%의 추가세액을 한국 모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A국 소재 자회사가 A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해당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즉, 베트남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은 한국모기업이 한국에서 납부하지 않고, 베트남자회사가 베트남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할 국가와 주체만 달라질 뿐 그룹차원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한편, 당초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입법안과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대체 보상안을 주는 입법안이 동시에 발의되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나 기존에 나온 대체보상안에 포함된 여러 안중에서 어떤 제도가 우리 기업입장에서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베트남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발표된 대체보상안은 적용 대상 매출액, 투자 규모 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국내 기업 중에서는 소수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적용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비단 베트남뿐 아니라, 다수의 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한국 세법만 고려하지 말고 각 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도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Tax3본부 강성원 상무

Tel. 02-2112-6771
E-mail. skang22@kr.kpmg.com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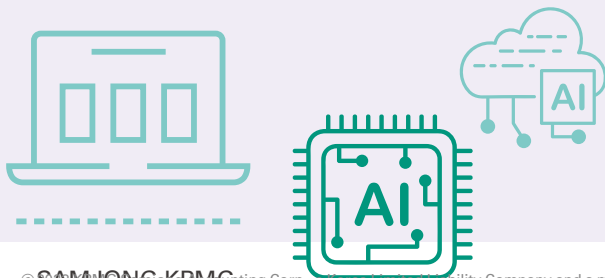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ChatGPT 등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많은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기에 AI 칩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온디바이스 AI와 연구개발 및 생산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는 마더팩토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생성형 AI 넘어 온디바이스 AI (On-Device AI) 시대로!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초로 인공지능(AI) 연산에 특화된 노트북 신제품을 나란히 선보였어요. 사실상 최초의 AI 노트북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 AI칩이 장착된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요.

삼성전자가 올해 초 선보일 갤럭시 S24시리즈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버즈3프로에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해당 스마트폰과 이어폰에서는 실시간 통역 기능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구글도 자사 스마트홈 픽셀 라인업에 온디바이스 작업에 효율적인 LLM(초거대 언어모델) 제미나이 나노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이미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온디바이스 AI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데이터와 연산을 지원받았던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AI에서 벗어나, 기기 자체에 탑재되어 직접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는 통신 상태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보안성이 높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AI 서비스의 업무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직종의 사용자가 AI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돼요. 즉, AI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을 까 기대를 모으고 있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는 마더팩토리 (Mother Factory)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첨단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무역장벽을 높였고, 이에 현대차,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이 지역에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첨단 기능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은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 시설은 해외에 구축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시행하려는 것이지요.

마더팩토리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생산 시설 중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공장을 말해요. 국내에는 첨단 제조시설을,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에는 양산 공장을 세우는 분업체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국내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 해외에 공장을 대거 설립했던 2010년 초반에 널리 사용되었고, 대표적인 예로 LG전자의 창원 공장,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 등이 있어요.

한편, 최근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가 배터리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마더팩토리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Hello 2024

올해는 나의 것!
2024 힘차게 비상할 용띠 삼정인 소망 대공개

20

Trusted Advisor

55주년의 시작을
함께한 신입 컨설턴트를 소개합니다!

22

인재양성소

FY23 New Partner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멘토 & 멘티를 만나다!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머피가 샐리를 만났을 때

26

心 Care

MBTI, E와 I의 진실은?
외향형과 내향형:
에너지의 급속충전을 위한 트랙

28

Samjong News

2024년 시무식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외

30

올해는 나의 것!

2024 힘차게 비상할 용띠 삼정인 소망 대공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올해 용띠 해인 만큼 용띠 삼정인을 만나 새해 소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법인 내 76년, 88년, 00년생의 용띠 삼정인들은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 이들의 새해 목표를 살펴보고, 힘찬 새해를 시작해보자.



차정환 상무 (ICE2)



심재성 S. Manager (Tax3)

KPMG



이빛나리 과장 (ITS)

Happy



양창규 Manager (Deal Advisory9)



김정민 Consultant (MC1)

New Year

KPMG Korea 55주년이 더욱 빛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3년은 오랜 시간 열망해온 '삼성전자 감사수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휘 하에 준비했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뛰어 달성한 성과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푸른 빛을 머금은 청룡의 해인 2024년은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하고 또한 희망의 푸른 청룡의 기운으로 KPMG Korea의 55주년이 대내외적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삼성 KPMG 다 같이 힘내서 파이팅! - 차정환 상무 (ICE2)



일과 가정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제 새해 소망은 가족과 직장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회사에서 부팀장이 되어, 프로젝트와 팀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결혼을 하게 되어, 가족에게 행복을 주어야 하는 새로운 책임이 생겼습니다. 또한 2024년은 KPMG Korea의 55주년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돈독한 신뢰를 얻고, 팀원들과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매니저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바와 같이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2024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양창규 Manager (Deal Advisory9)

기대와 설렘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되고파

2023년을 돌이켜 생각하면 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미국 서부 여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유여행이라 부족한 순간도 많았지만,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따뜻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미국 동부 여행을 계획하여 저에게는 넓은 시야와 견문을 부모님에게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걱정과 염려보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스스로 응원하며, 삼성KPMG의 모든 임직원분들 역시 2024년 뜻하는 바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 이빛나리 과장 (ITS)

운동과 가족 여행, 그리고 법인의 성장에 기여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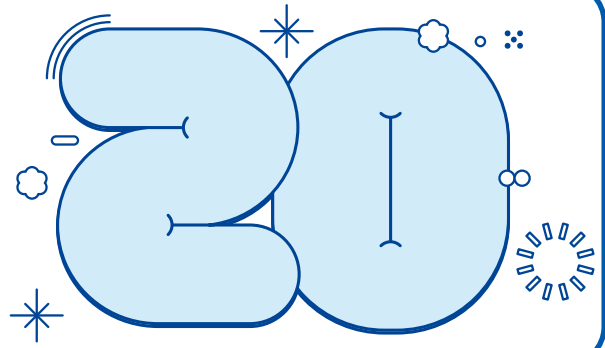
2023년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의 출산이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으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전해 주신 축하와 축복에 더욱 감사한 해였습니다. 2024년 첫 번째 목표는 여러 핑계로 소홀히 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여 골프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요. 두 번째 목표는 아이, 아내와 함께 해외 여행을 하고 많은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지난해 출산과 육아로 가족과 함께 여행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통해 많은 추억을 만들면 좋겠네요. 끝으로 KPMG Korea 55주년을 맞아 개인적으로는 많은 업무를 경험해 보고, 제가 속한 본부와 Tax Function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 법인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심재성 S.Manager (Tax3)

다양한 배움과 경험으로 역량 갖춘 컨설턴트 될 것

2023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KPMG에 입사하여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설렘과 동시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 더욱 풍부한 역량을 갖추어 한층 더 성장한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협업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삼성KPMG 모든 구성원분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며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 김정민 Consultant (MC1)

55주년의 시작을 함께한 신입 컨설턴트를 소개합니다!



"튼튼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

ENTJ-대담한 통솔자 (프로가생러!
목표 세우고, 이를 때의 큰 성취감
느끼는 걸 선호해)
취미: 좋아하는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 여행 등



ENTJ

김유강 컨설턴트 (SG)

대학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와 ESG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업계 최고이자 ESG 시장의 선두주자 삼정KPMG에 입사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입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고, 55주년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원이 된 것에 대해 기대감이 매우 큼니다. 신입이기에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겠지만, 반대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업무에 처음 도전하기 때문에 적응하고 배워갈 점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발전을 이룰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또한,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도록 선배님들과 동료 분들과 협업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살려 가는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선배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가장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성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했을 때 든든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열정과 인내심 갖춘 신입으로!"

ESFJ-사교적인 외교관 (배곡한 아이폰 캘린더,
철저한 계획과 실행력을 갖춘 컨설턴트로!)
취미: 맛집 탐방, 여행 등



ESFJ

최유리 컨설턴트 (MC3)

삼정KPMG 합격 소식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주변의 많은 축하 속에서 삼정KPMG에서 성장할 제 모습이 그려졌고, 꿈을 이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에 무척 설렘이요. 특별히 55주년이 되는 해에 입사하게 되어 영광이고, 긴 세월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배워갈 수 있음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계속될 KPMG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성과를 위한 열정과 인내심을 갖춘 신입이 되고 싶어요. 면접 때, 파트너님께 컨설턴트로서 길러야 할 역량에 대해 여쭙봤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투입하는 인내심과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선배님들 처럼 유능한 컨설턴트가 되고 싶고, 무엇보다도 고객사의 이슈에 공감하며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는 최상의 파트너라는 KPMG의 위상을 이어가고 싶어요. 열정과 인내심으로 프로젝트에서의 성과에 일조하는 신입을 기대해 주세요!



KPMG Korea 55주년 해를 시작하는 1월, 총 41명의 신입 컨설턴트가 입사했다. 신입 컨설턴트 및 하반기 수시 입사자 총 65명은 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면으로 열린 입문 교육에 참여했다. 입문 교육을 통해 삼성인으로서의 소속감과 로열티를 제고하고,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배우며 컨설턴트로서의 시작을 준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삼성KPMG의 빛나는 미래를 이끌 신입 컨설턴트를 소개한다.

"남다른 시각과 열정으로 유일무이한 컨설턴트로!"

ISFJ-용감한 수호자 (내향적이지만, 친해지면 활발! 완벽주의자 성향은 삶의 원동력)
취미: 댄스, 필라테스, 피겨스케이팅, 베이킹, 액세서리만들기 등



엄채린 컨설턴트 (Digital)

'소비자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여러 진로를 고민하고, 방향하던 와중에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전공과목을 통해 소비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보고, 이를 해결하며 소비자의 복지 증진이 곧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통합적인 전략에 대해 고민해왔어요. 이러한 고민과 경험은 여느 경영학을 공부한 이들과 다른 시선으로 고객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컨설턴트로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무척이나 설레게 했죠. 삼성KPMG 입사를 확정 지은 순간 새로운 환경에서 훌륭한 선배님들과 동료 분들과 함께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신입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고 싶고, 빨리 성장을 이뤄가 맡은 바 그 이상을 해내고 싶어요. 특히나 KPMG Korea 55주년이라는 해에 입사한 만큼 법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유일무이한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남다른 시각과 열정으로 법인에 성과에 기여하는 삼성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감과 열정을 다해 일하는 컨설턴트"

INFP-열정적인 중재자형 (미래를 계획하며 대비하는 성격)
취미: 독서, 실내암벽등반 등



오준석 컨설턴트 (RC)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할 무렵, 현재 삼성KPMG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신 선배님께서 입사 지원을 제안해 주셨어요. 선배님은 고객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산업을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다는 점, 똑똑한 팀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컨설팅의 매력 포인트라며 저의 관심사인 리스크 관리 분야와 연관 지어, 삼성KPMG RC본부가 훌륭한 리스크 컨설팅 실적이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권유를 듣고 나니 리스크 관리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제게 삼성KPMG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입사 지원 후 고깃집에서 친구에게 취준에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던 중이었는데, 합격 메일을 받고 기쁜 나머지 고깃집을 방방 뛰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하하. 특히 5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입사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삼성KPMG에서 책임감과 열정을 다해 일하고 싶어요. 선배님들의 모든 것을 최대한 흡수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쓰임새가 있는 즐기세포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FY23 New Partner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멘토 & 멘티를 만나다!

- 전철희 부대표 (ICE3)

멘티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

멘티들과 교류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저를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멘티를 보면서 과거 파트너로 승진해서 우왕좌왕하며 시행착오를 겪던 시절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멘토링 기간 멘티들의 성장 모습을 보며 멘티는 지금의 제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같은 생각을 했어요. 멘토링을 통해서 저를 본받고자 하는 신입 파트너들이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 가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멘토링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어요. 첫째, 후배들과 진솔한 대화 나누기, 둘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셋째, 고객 네트워크 BD개발 노하우 쌓기 등에 대해 나눴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뤄야 건강한 성장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멘토링을 통해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의 멘티들과 계속 소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고자 하며, 멘티들이 삼성KPMG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힘닿는 대로 소통하며 지속 지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전철희 부대표 (ICE3) · 이현승 상무 (B&F3)

- 이현승 상무 (B&F3)

나침반이 되어준 존재!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게 돼

멘토는 저에게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에 세 차례에 걸쳐 멘토링을 진행하며, 멘토님은 현재까지 법인생활을 하시면서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등 많은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파트너로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조언해 주셨어요. 이러한 멘토님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다소 막연했던 파트너로서의 미래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멘토링을 통해 업무적으로만 조금 알고 지낸 동료 멘티들과도 네트워크를 쌓고 교류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타 본부와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법인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선배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후배들에게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요!



삼정KPMG는 FY23 New Partner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FY23 New Partner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파트너로서 변화된 역할에 안착하고 파트너의 3가지 역량인 Leadership, Business Insight, Business Development 역량과 자기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멘토와 멘티 서로가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서는 멘토&멘티를 만나 프로그램 참여 소감도 들어보고, 서로에 대한 정의도 내려봤다.

- 손호승 부대표 (Deal Advisory7)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나를 돌아본 시간! 친근한 선배 파트너로 다가갔으면

어느새 파트너로 근무한지, 15년이 훌쩍 지났네요. 이번 멘토링 활동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제 모습을 볼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며, '나도 그랬었지',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선배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순간들이었죠.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파트너들에게 한발짝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멘토링을 하며, 내가 많은 조언을 하기보다 이야기를 경청하려 했습니다. 멘티분들은 어떻게 느꼈을 지 모르겠지만, 멘티가 무엇이든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친절한 선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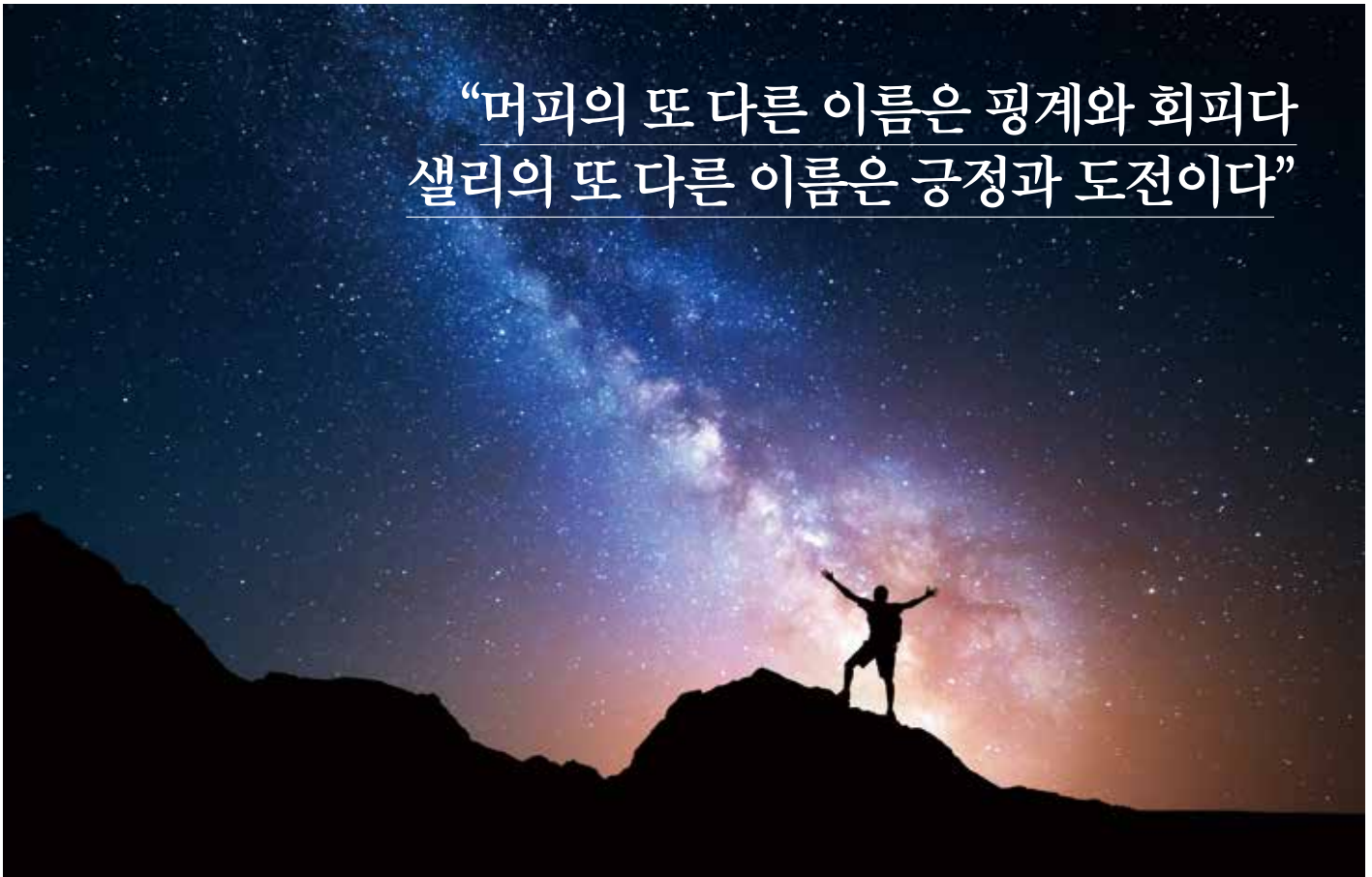
- 백명종 상무 (IM3)

멘토는 역사책, 막막했던 길을 안내해준 동반자!

멘토는 제게 역사책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배 파트너로서 걸어온 역사를 바탕으로 후배 파트너들에게 해안을 주시는 안내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이죠. 이번 멘토링을 위해 일정 계획부터 장소 섭외까지 멘토께서 적극적으로 리드해주셔서 멘티들이 부담 없이 멘토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신임 파트너들의 고충을 잘 경청해주시고, 진솔된 대화를 통해 멘티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무엇보다 멘토링이 없었다면 앞으로의 파트너라는 새로운 길을 어떻게 헤쳐갈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멘토링을 통해 자기관리, 구성원관리, 고객관리 세가지 측면에서 신임 파트너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공감하며 앞으로 헤쳐나갈 길을 찾는 듯해요. 특히나, 멘토님이 전해주시신 '이 또한 지나리라'라는 명언을 통해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간 파트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초심을 잃지 않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장서서 실천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멘토링에서 얻은 교훈을 저도 신임 파트너들에게 전할 멘토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게요!



“머피의 또 다른 이름은 핑계와 회피다 샬리의 또 다른 이름은 긍정과 도전이다”



머피가 샬리를 만났을 때

다양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종의 신기한 경험법칙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첫째, ‘머피의 법칙(Murphy’s law)’

둘째, ‘샬리의 법칙(Sally’s law)’

셋째, ‘줄리의 법칙(Jully’s law)’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일은 예상치 못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와 비슷한 현상이다. 머피와 샬리가 ‘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줄리는 사람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머피의 법칙

1949년 당시 미 공군 실험에서 벌어진 일화의 주인공 에드워드 머피 대위의 이름에

서 유래한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은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거나 거듭 낭패를 겪을 때 쓰는 말이다. 옛말에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거나 흔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예컨대, 매일 버스로 출근하다가 그 날따라 택시를 탔더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헬레벌떡 도착한 건물 내 엘리베이터 모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 등이 머피의 법칙에 속한다.

그 외에도 우리 생활 도처에서 머피는 발견되는데, 일부 흥미로운 것들을 소개해본다. 보통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둘 다 있으면 메모 할 일이 없다. 치통은 꼭 치과 문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코를 심하게 고는

꼭이 항상 가장 먼저 잠든다. 버스 안에서 간만에 좋은 노래가 나올치면 꼭 안내방송이 나온다. 특히 좋은 아이디어는 꼭 샤워할 때나 용변 볼 때 떠오른다.

그러나 이러한 머피의 법칙을 과학적 심리 관점에서 설명하면,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Cognitive Error)'가 존재한다. 평소에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고 인식하는 식인데, 알고 보면 과거의 안 좋았던 기억의 탓이라는 거다.

샐리의 법칙

반대로 우연하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샐리의 법칙(Sally's law)'이라고 한다. 여기서 샐리는 1989년 미국 라이너 감독의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When Harry Met Sally)>에서 연속으로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여주인공 샐리(맥 라이언 역)의 모습에서 따온 것이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했다더니 상대방이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 건물 목에 도착하자마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경우, 시험 직전에 급하게 펼쳐 본 문제가 출제된 경우, 지각을 했는데 출석을 늦게 부르는 경우, 옷 사러 갔는데 마침 세일 중인 것 등은 모두 샐리의 법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머피와 샐리의 법칙 모두 '선택적 기억(Selective Memory)'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을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면 당연한 일로 치부돼 기억하지 않지만, 그 일이 실패했다면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성공한 사례는 아예 기억하지 않고 실패한 사례만 기억해서 모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든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들 삶은 과연 머피와 샐리 중에 누구를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순전히 운(運)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나, 깊이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머피의 법칙을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자신의 무지, 게으름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안되었음에도 자신은 언제나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다고 그 핑계를 머피에게 돌려 버린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과 다를 바 없다.

속 좁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머피와 샐리가 동거하고 있다. 불안감, 회의감, 도전 회피 의식 등은 머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살아가면서 불청객 머피는 수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빛나는 삶의 의지에 따라 머피는 얼마든지 샐리로 바뀔 수 있다. 푸른 용(龍), 새해에는 늘 핑계로 바쁜 머피보다는 느긋한 샐리를 자주 만날 수 있는 밝은 마음과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로 최근 출시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지문(THINKPRINT)』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 작가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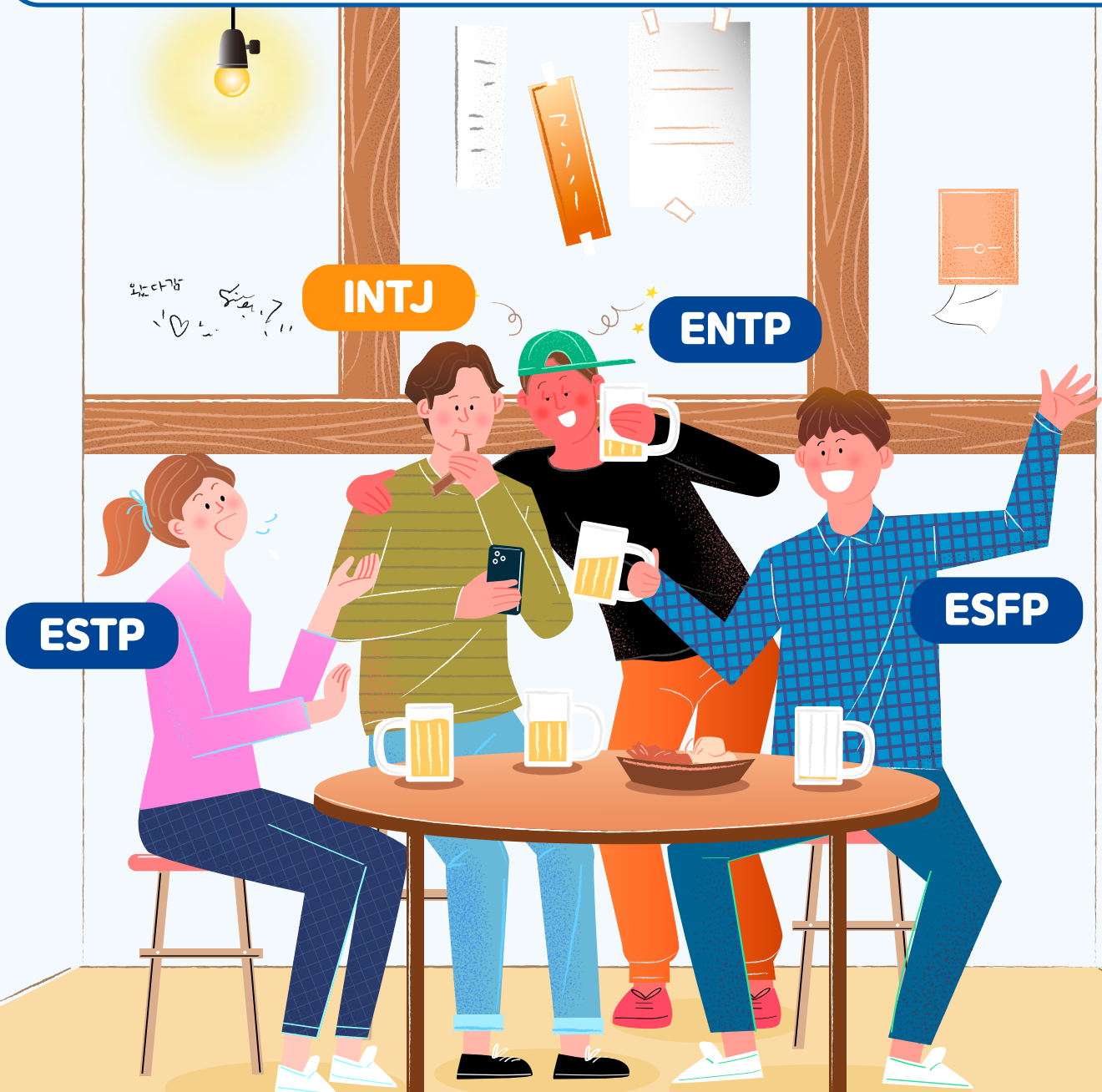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MBTI, E와 I의 진실은?

외향형과 내향형: 에너지의 급속충전을 위한 트랙

MBTI 항목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판별 가능한 질문이 ‘당신은 외향형인가요? 내향형인가요?’라고 한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면 외향형이고,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하면 내향형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와 닿는 개념이니만큼 오해가 많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의 기준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과 심리학적 기준을 다뤄본다.



오해 1 |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어렵다?!

틀렸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다. 이 오해는 개념 정의를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다.

| 외향성 Extroversion | 내향성 Introversion |
|-----------------------|-----------------------|
| 관심과 에너지가 외부를 향해 있음 | 관심과 에너지가 내부를 향해 있음 |

외향성은 사교성, 사회적 기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과 큰 관계가 없다. 동시에, 내향성은 소심함, 낮가림과도 무관하다. 그렇다면 내향/내향성과 무슨 개념을 혼동하는 것일까?

| 높은 사회성 high social talented | 낮은 사회성-내성적 low social talented |
|--------------------------------|-----------------------------------|
|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잘하고 쉬움 |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움 |

전통적으로 '내성적'이라는 것이 그리 환영받지 않는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보니 내향성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적인 판단을 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내향적이지만 높은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방송인 유재석씨의 MBTI가 '내향형'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다), 외향적이지만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다(모든 모임과 술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끼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오해 2 | 외향적인 사람들은 밖에 나가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쉬는 것 같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부 환경과의 교류, 만남을 통해 만족감을 채우기에 밖에 나가는 행위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바깥에서 신체적 활동 자체는 즐기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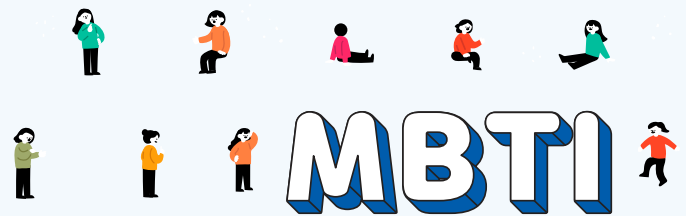
혼자서 그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리적으로 몸은 밖에 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는 내부를 향해 있을 것이다. 반면 주말을 항상 집에서 보내더라도 매주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외향적이 관심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느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느냐'로 외향성과 내향성을 전적으로 판별하기엔 무리고, 세부 활동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외향과 내향, 더 큰 만족감을 위한 역설적인 제안

MBTI 검사를 정식으로 해보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더 만족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지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요즘 업무로 너무 무리를 해서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외향성보다 내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문제는 평소 에너지를 회복하던 방식대로만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그 회복 수단에 익숙해져서 '채워진다'는 느낌을 체감하기가 어려워진다. 집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하는 분이 휴일마다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 점점 휴식 시간이 늘어나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 '더 높은 강도로 집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향형도 마찬가지다. 밖에 나가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 등의 제약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순간'을 짜릿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내향인들은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의 편안함을 재생해야 한다. 반대로 외향인들은 집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 사람들을 만나는 쾌감을 최대화 시키면 좋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2024년 시무식 온·오프라인으로 개최 55주년의 해 맞이해, 'Vision 2025' 향한 의지 다져



삼정KPMG가 지난 1월 2일 갑진년(甲辰年) 시무식을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시무식에서는 2023년 법인의 성과를 돌아보고, 'Vision 2025'를 향한 도전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인사는 최은영 상무(Tax2)와 김진원 부대표(DA8)가 맡았다. 삼정KPMG는 지난 한 해간 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컨설팅 모든 부문에서 양적·질적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왔으며, 건강한 성장을 바탕으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모두가 체감하는 좋은 변화'를 목표로 업무 방식의 개선,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함께 즐거운 법인 생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시무식 현장에서 김교태 회장은 "외부 경제적 요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 삼정KPMG는 'People First'를 강조하며 구성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Innovative Change와 Smart Caring, Best Compensation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4년은 AI의 활용으로 감사 효율성을 높이고, ESG 공시, 글로벌 최저한세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라며 "우수 인재 영입과 유지, 우수한 퀄리티를 위한 노력, 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변화를 냉철하게 읽고 지혜롭게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고객에게 다가 가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바꿀 수 있으며, 'Vision 2025'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5개 부문 64팀 후보 중, Clients와 Operational Excellence 부문 수상 'KPMG ASPAC Chairman Award 2023'에서 2개 부문 수상 쾌거!



삼정KPMG가 지난해 12월 'KPMG ASPAC Chairman's Award'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KPMG ASPAC Chairman's Award는 ASPAC Member Firm의 Best Practice에 대한 포상으로, 전체 5개 부문 64팀 후보 중, 한국의 삼성전자 회계감사팀과 Smart Footing Tool 개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성전자 회계감사팀은 체계적인 Audit Target 전략과 전문성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로 감사 수임을 이루었으며, KPMG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수임으로 KPMG의 위상을 높인 것을 인정받았다. 또한 Smart Footing Tool 개발팀은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People First - Audit Innovative Change'를 목표로, 편의성과 활용도를 큰 폭으로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포상으로 수상팀이 직접 지정한 ASPAC Region 내 자선단체에 팀 명의로 각 USD 1,000이 기부될 예정이다.



ASPAC Chairman's Awards 2023

Client 부문 수상

'삼성전자 감사팀 - ICE2, ICE3, IT Audit, IA'
차정환 상무 (ICE2)



삼성전자 수임 자체로 큰 선물인데 이로 인해 영광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두명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기에 금번 수상은 삼성전자 감사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삼정KPMG 전체에 대한 상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준비부터 끝까지 지휘해 주신 김교태 회장님, 한은섭 부회장님, 고문단님 그리고 팀을 이끌고 계신 염승훈 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상의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삼성전자 감사팀을 잘 수행하여 삼정KPMG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perational Excellence 부문 수상

'Smart Footing Tool 개발팀 - Q&RM-DPP, Lighthouse'
박원일 상무 (Q&RM-DPP)



최신 기술 발전에 발맞춰 SFT(Smart Footing Tool)가 회계감사 업무 환경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기획부터 완성도 높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DPP 문유진, 구자은, 류정화 매니저, 부족한 요건 정의에도 훌륭한 솔루션을 만들어 주신 Lighthouse의 김태유 부장, 김홍해 차장, 전상혁 과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새로운 시도를 실패 걱정 없이 마음껏 해볼 수 있게 지원해 주신 회장님, 한은섭 부회장님, 양승열 대표님, 조원덕 부대표님, 최재범 부대표님, 양현석 전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입 컨설턴트 입문 교육 진행, 전문가로서 소양 다져



삼정KPMG가 신입 컨설턴트 41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신입 컨설턴트 입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입문 교육은 지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신입 컨설턴트를 비롯해, 지난해 하반기 수시 입사자 총 6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입 컨설턴트는 1월 2일 삼정KPMG 역삼동 본사에서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수강한 후 3~5일까지 경

기도 광주의 곤지암 리조트에서 진행된 합숙 입문 교육에 참가했다. 입문 교육에서는 ‘법인과 나, 우리 알기’라는 주제로 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고, ‘내일을 위한 전문가 마인드셋’ 시간을 통해 비즈니스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동기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팀 빌딩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MC1 김현일 상무, 금감원장 표창 받아

2023년 5월부터 약 4개월 간 진행된 ‘금융감독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지난해 12월 29일 금감원 대외 정기포상으로 금감원장의 표창을 받았다.



김현일 상무는 “금융권에 영향이 상당히 큰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것 자체가 큰 선물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셉테크(Supervisory Technology)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감독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후속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수임해 법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장님, 박상원 부대표님, 박용수 부대표님, 양현석 본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제안부터 시작해 금융위원회 예산심의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한 이보라 매니저, 장수진 컨설턴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MC3 남진영 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삼정KPMG MC3본부 GTS (Global Trade Strategy)팀 남진영 이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수입규제대응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 이사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 방어에 기여했으며, 인도 정부의 명분과 한국 기업의 실리를 감안한 방안을 수립하고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남진영 이사는 “보호무역조치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한 바를 인정하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를 통해 기존 자문의 신뢰성을 다지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팀 동료들과 리더인 박원 상무님, 봉찬식 본부장님, 박상원 부대표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아윤, 선민)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 리그테이블' 회계자문 부문 1위 선정

삼정KPMG가 '2023 리그테이블' 회계자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스 템임플란트 공개 매수와 SK하이닉스 수처리 시설 매각 등 굵직한 조 단위 빅딜뿐만 아니라 중소형 딜에 두루 이름을 올리며 선두 자리에 올랐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3년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삼정KPMG는 완료 기준(Completed) 회계 자문에서 약 19조8천327억 원의 실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완료된 전체 회계 자문 실적에 36.56%를 넘어서는 수치다.



부동산매매 회계자문 1위, 2연 연속 수성



삼정KPMG가 2023년 M&A(인수합병) 시장에서 2022년에 이어 회계자 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딜사이트 집계 '2023년 M&A 리그테이블'에서 삼 정KPMG는 총 4건, 3,696억 원의 자문 실적을 기록했다. 4대 회계법인의 부동산매매 회계자문 참여 건수 중 1,000억 원 규모 이상의 거래도 삼정 KPMG만 유일하게 맡았다. 제이비로지스가 에이디에프케이엘비에프1전문 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호에 매각한 죽당리 물류센터(1,088억 원) 건 으로, 삼정KPMG가 회계자문을 맡았다.

있는 삶을 사는 시혜!

(전) 연세대학교 철학교수
김형철
khc602@gmail.com



FY23 삼정포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 주제로 열려

삼정KPMG는 지난해 12월 13일 '삼정포럼 -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팀즈 라이브(Teams Live) 와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연세 대학교 철학과 김형철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리더 십은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 자세'라는 관점에서 가 치 있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강연에서 리더는 자기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이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음 계획까지 미리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의 목적 과 일의 근본에 대해 질문하며, 1등을 목표로 하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리더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쟁글, '가상자산 세미나' 공동 개최



삼정KPMG가 온체인 데이터 기반 인프라 및 솔루션 제공 업체 쟁글과 함께 지난 1월 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기업 대상 '가상자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정KPMG와 쟁글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당국에서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감독 지침'에 대비해 회계, 공시, 내부통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번째 세션은 쟁글 김준우 공동 대표가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발표했다. 회계 및 공시, 내부통제 환경에서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삼정KPMG 최연택 상무가 제시했다. 이어, 쟁글 이

현우 공동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가상자산 유통량 정보 및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삼정KPMG 최연택 상무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이슈와 시사점을 안내했다. 삼정KPMG 김병국 상무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삼정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리더인 박성배 부대표는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 공시 및 정보보호 의무화 등 가상자산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상자산 감독 방향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ntact: 최연택 상무 yeontaekchoi@kr.kpmg.com



삼정KPMG-쟁글, 가상자산 회계처리 위한 온체인 데이터 연구 업무 협약 체결

삼정KPMG가 지난해 12월 19일 쟁글과 가상자산 회계 처리를 위한 온체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웹 3.0 기반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공시를 위한 온체인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와 관련한 삼정KPMG 및 쟁글의 각 사업을 상호 발전시키며 협력관계를 증진할 계획이다.

삼정KPMG는 쟁글과 함께 온체인 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체계, 발행 후 자산관리와 공시, 내부통제 및 회계,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관련 자문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쟁글은 웹 3.0 기반의 가상자산 ERP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공동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공시 관련 전문성을 높여 실사례 및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자사의 솔루션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삼정KPMG가 후원하는 WCD Korea, 특별 포럼 개최! IMF 총재 특별 강연 진행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WCD Korea)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세계 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를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여성이사협회는 '기업 이사회 여성 이사 확대 및 육성'을 목표로 창립된 비영리 글로벌 회원 단체이며, 한국 지부는 2016년 74번째 지부로 창립됐다. 삼정KPMG는 WCD의 Global Lead Sponsor로서, WCD Korea의 발전을 위해 매년 후원을 하는 등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열린 특별포럼에서는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가 기조연설에 나서며 화제를 모았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직접적인 지원(direct support), 유연한 노동 시장(nimble labor markets), 관습의 개선(updated customs) 3가지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고위직 여성 증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고위직 여성의 절대적인 양을 늘려야 한다"며 "권한 있는 자리에 여성이 있는 모습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 젊은 여성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훨씬 더 빠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ntact: 노원 전무 wroh@kr.kpmg.com

[사랑나눔] 비대면 숲 만들기 '도토리 묘목 심기' 봉사 활동

삼정KPMG가 (사)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매년 건강한 도시 숲을 만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택에서 도토리 씨앗을 심고 묘목을 키우는 비대면 숲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봉사에서는 112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해 160개의 도토리 씨앗을 키우고 있다. 임직원들이 키운 묘목은 굳은 땅이 풀리는 올해 4월 노을공원에 보내진 뒤 모판에 2년 여를 보낸 후 식재가 될 예정이며, 푸른 숲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